

◎한국 IPG의 활동

- 제 45회 한국 IPG 세미나 ‘차세대가 생각하는 지식재산 전략 2025’를 개최했습니다 01
- 한국 지식재산처 출범 03

◎IP를 알자

- 한국IP뉴스 04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WIPO 글로벌 어워즈를 한국 스타트업 기업 ‘코드그림’이 수상!
 - 한국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
 -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본 차세대와 지식재산의 중요성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사무국 메시지

2026년이 밝았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한국에서는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2025년 10월 15일에 초고속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초고속심사제도를 활용했을 경우의 심사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일까요?

- ① 16개월 ② 1개월 ③ 7일

※ 정답은 본지 3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IPG의 활동

제 45회 한국 IPG 세미나 ‘차세대가 생각하는 지식재산 전략 2025’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금), 선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대한민국) 및 테이코대학(일본)의 협조를 받아 한국 IPG/SJC와 공동으로 한국 IPG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 갈 두 대학의 학생들이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지식재산’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채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지식재산권에 중점을 둔 ‘지식재산 부문’과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부문’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각 부문에서 6팀(지식재산 부문: 숙명 3팀+테이코 3팀, 비즈니스 부문: 숙명 3팀+테이코 3팀)이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제안 발표 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한유진 교수와 테이코대학의 키무라 토모히사 교수가 각 제안에 대한 강평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법률사무소 정지우 변리사가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IP’를 주제로 최신 IP 동향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전략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의 발표 모습

참가자의 발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훌륭한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테이코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지식재산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스타일리스트 (아베 치히로) · 강제 기상 전기 담요 (카토 사야야) · ACTICO (하마다 슈우고, 사토 쿄우타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솔루션 매칭 서비스 (도승희, 홍예림) · TeaTokTa (강리안, 권다은, 최은서) · 곡선형 레토르트 파우치 (김재운, 김영교, 김은빈, 강채원)
비즈니스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의 상식이 녹아든다 (나니카와 토우와, 쿠보타 유우타, 콘도 다이치, 사토 히사나, 모리구치 마유) · TSUMUGU (츠카모토 이오, 스즈키 하루야) · Emotion Log (오오와키슈우야, 타구치리쿠, 타카하시 토모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문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 (조사랑) · PRESSURE (김세은, 강수연) · AI 기반 온라인 교육 운영 SaaS(김효정)



숙명여자대학교 하윤수 교수

김·강 법률사무소 정지우 변리사



테이코대학 키무라 토모히사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한유진 교수

본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이 과제 발굴부터 해결방안 도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 아우르는 제안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유사 행사로는 한국 지식재산청이 주최하는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가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기업 등의 실제 과제 중 각자가 도전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도 CPU에는 전국 3,200명의 대학생이 참가했으며, 이번 IPG 세미나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도 다수 수상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도한 숙명여자대학교의 하윤수 교수는 국무총리상 수상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팀의 지도교수 부문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지식재산청장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CPU 수상자의 평균 취업률은 78.6%로, 같은 기간 공학계 평균(70.4%)보다 약 8%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을 체합하는 도전이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실제 기업 활동에 가까운 형태의 지식재산 관련 경험은 기업이 요구하는 즉시 전력에 가까운 역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 활동이 더욱 폭넓은 층에 확대될 수 있도록 JETRO 서울사무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가자 단체사진

○ 지식재산처 출범

2025년 10월 1일, 한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한국 특허청(KIPO)이 지식재산처(MOIP)로 승격되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고 있던 ‘지식재산기본법’도 지식재산처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김용선 처장이 초대 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 특허청 출신인 김용선 처장은 국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 전문가로, 2020년부터 특허청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대내외 성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IP 센터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신규 운영되면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대응이 더욱 폭넓고 기능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김용선 처장이 취임하고 1개월 후인 2025년 12월 1일, 지식재산처는 보도자료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9년까지 가입 추진”이라는 뉴스를 통해 2029년 특허법조약 가입으로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한국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국제적 행보 의향을 밝혔습니다. PLT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의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한국 특허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으로 존재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산업통상부 소속 외청에서 독립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됐습니다. ‘처’라는 단위가 일본에 존재하지 않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영문 표기가 ‘Office’에서 ‘Ministry’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승격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KIPO)은 대전시에 위치해, 청장, 차장, 1관 9국 1단 57과 3개의 소속기관, 1,785명 규모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식재산처(MOIP)는 다른 ‘처’가 존재하는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대로 대전시에 남게 되며, 처장, 차장, 1관 10국 1단 62과, 3개의 소속기관, 1,8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 특허청(KIPO)의 부서였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은 각각 ‘산업재산’이라는 명칭이 ‘지식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정보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재산’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4가지 권리를 의미하지만, 이번에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조각·부서 명칭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4가지 권리뿐 아니라 브랜드 등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개편 전 ‘산업재산분쟁대응과’의 업무를 이어받아, 국(局) 단위로 승격되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됩니다. K-브랜드는 이제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상품 전반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위조 상품 피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식재산처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지식재산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7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 조언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퀴즈 정답

정답은 ② 1개월입니다. 2024년 평균 심사 기간은 16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초고속심사에서는 1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고속심사를 이용해 특허결정을 받은 기업 중에는, 신청 후 19일(첨단기술 제1호)과 21일(수출촉진 제1호)이라는 단기간에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 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특허청 (2025.8.1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제시됐으며,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 현안 과제 등을 심층 검토해 반영하였다.

② 특허청, LG AI 연구원과 '지식재산분야 AI, 간담회 개최'

한국특허청 (2025.8.13.)
특허청은 8. 13.(수)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 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EXAONE)'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문헌의 핵심기술 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 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심판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딥러닝 기반 AI 시스템을 특허·상표·디자인의 검색, 분류, 번역 등 특허심사행정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향후 AI 활용을 지

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할 계획이다.

③ 지식재산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특허청 예산안 7,248억 원 편성

한국특허청 (2025.9.1.)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7,058억 원 대비 190억 원 증가한 규모다.

2026년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 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536억 원 증가한 4,189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2026년도 집중 투자 분야로 아래 4가지를 제시했다.

1)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업무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강화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지원한다.

2)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하여 수출기업화를 지원한다.

3)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한류 편승 제품과 무단 상표 선점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K-브랜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4)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전 세계 6.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R&D 전략 고도화와 상용화 촉진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④ '오네', '윤800'체, 우수 한글 상표 디자인으로 선정 | 지식재산처 (2025.10.16.)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에 CJ대한통운의 '오네'가,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에 윤디자인의 '윤800'체가 선정됐다.

지식재산처는 10. 16(목) 14시 디자인하우스(서울시 중구)에서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와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표·디자인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우리말로 만든 상표와 한글의 조형미를 살린 글자체 디자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로 선정된 CJ대한통운의 '오네'는 '절렘과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를 순우리말 상표로 풀어냈다.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에는 '깨끗한나라', '나무와가지' 등이 선정됐다.

-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지식재산처장상)으로 선정된 윤디자인의 '윤800'체는 기존 명조체와 고딕체의 특징을 하나의 글자체로 표현했다. ▲오피스 한글디자인(지식재산처장상)에는 무림산업의 '무림한글에서01체'가 선정됐다. IPG

⑤ 학교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세요 | 지식재산처 (2025.10.20.)
지식재산처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발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발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문제해결력 등 창의인재 양성에 중요한 교육으로, 이번 교과서 개발은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발명교과 채택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발명' 교과서는 발명교육 전문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고,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완성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됨으로써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해당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3학년 상표, 4학년 디자인, 5학년 특허, 6학년 지식재산으로 학년별 내용도 체계화했다.

⑥ 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 발족

지식재산처 (2025.10.31.)
지식재산처는 10. 31(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인한 지식재산정책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 교수, 판사, 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와 AI 관련 기업의 IP 담당자 등 2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AI 기술로 인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과 ▲AI 관련 출원가이드 도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AI 기술로 인해 지식재산처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발명·창작물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AI의 블랙박스 특성, 시가 생성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문제점 등

⑦ 지식재산 경영전략 배우러 23개국 전문가, 서울에 모인다.

지식재산처 (2025.11.03.)
지식재산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한국발명진흥회(KIPA)와 공동으로 11. 3(월)부터 6(목)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인증 과정(AICC)'을 개최한다. 올해는 지식재산처·WIPO·KIPA가 공동 개발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 교육 e-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을 활용해 온라인 과정을 수료한 119개국 1,364명 중 23개국 35명의 우수 학습자를 최종 선발해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

여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경영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오프라인 교육 과정은 국제 비즈니스 경영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된 ▲지식재산(IP) 가치 평가 및 금융 ▲인공지능(AI) 등 최신 IP 동향 ▲특허등급 평가 및 활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창업초기기업·개척기업을 위한 IP 경영전략 수립 방법, 분쟁 대응전략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영 실무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과정에는 미국, 뉴질랜드 등 국내외 저명 로스쿨 및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특허법원 판사 등 유명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본 과정은 전 세계 기업·학계·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총 188개국에서 15,000여 명이 수강했다.

⑧ 지식재산처, 한·일·중 지식재산 교육 위해 머리 맞대 | 지식재산처 (2025.11.11.)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 11(화)~12(수) 파르나스 호텔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을 개최한다.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10년부터 한국·일본·중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5년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IPTC)등 한·일·중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중의 ▲신규 e-러닝 콘텐츠 개발 전략,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 운영, ▲지식재산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일·중 공동 e-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회담과 별도로 기간 추진된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 진출입 기업 교육 및 심사관 해외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PG

File No.203

WIPO 글로벌 어워즈를 한국 스타트업 기업 '코드그림'이 수상!



2025년 7월 14일, 한국 특허청은 “한국 여성·청년 창업 기업인 ‘코드그림’이 2025년 WIPO 글로벌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총 10개 기업으로, 한국 기업이 수상한 것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한국 특허청의 보도 내용과 WIPO의 홍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1. WIPO Global Awards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IPO는 매년 본상을 통해 수상자의 공헌을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본상은 95개국에서 응모한 총 780건의 과거 최다 안전 중 선정된 10건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한 응모 안전 중 가장 높게 평가된 안전의 수상자에게 주어집니다. WIPO 글로벌 어워즈는 특히 ‘지식재산을 활용한 전략을 통한 사업 성장 달성’,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기여하는 이노베이션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을 뒷받침하고 혁신과 창조에 탁월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목표 달성과 사회 개선에 기여한 중소기업, 신생 기업, 그리고 대학에서 스피어아웃한 기업 등을 표창합니다. 또한 WIPO 글로벌 어워즈를 수상한 기업에게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노베이션과 창조의 상업화를 통해 새로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상 기업을 더욱 서포트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자금조달이나 상업 제휴 기회 등 지식재산을 상업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1:1 개인지도, 국제적인 홍보 및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영예로운 수상식 및 네트워킹 이벤트 참석(여비 지원), 이에 더해 WIPO 네트워크 및 지식재산 관리 자문을 위한 리소스 접근 권한 부여 등이 있습니다.

2. 수상자

올해의 수상자와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정보는 ‘WIPO Global Awards 2025’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Startup

- **CodeGream** : 3D product showcase(한국) Creative Industries
- **Glovatrix** : Sign-to-speech gloves (인도) Health
- **Smart Drain - Urban Inventors** : Anti-flood drain system (스리랑카) Environment

- **Planetary** : Mycoprotein fermentation tech(스위스) Agrifood
- **Quinas Technology** : Next-gen memory chips (영국) ICT

SME

- **Hummingbird Bioscience** : Antibody therapeutics (싱가포르) Health
- **Carbfix** : CO₂ mineral storage (아이슬란드) Environment
- **PhageLab** : Antibiotic alternatives (칠레) Agrifood
- **ClicknClear** : Music rights licensing (영국) Creative Industries
- **Unitree Robotics** : Quadruped robotics (중국) ICT

3. 코드그림

2022년에 설립된 ‘코드그림’은 여성 최고경영자(CEO) 윤주원 대표가 이끄는 기업으로, 3D 웹사이트 제작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10-2556998)를 취득하여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도 3D 콘텐츠를 활용하여 웹사이트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교육, 문화, 관광, 쇼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WIPO 국제심사위원은 “코드그림은 여성·청년 창업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실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낸 모범적인 사례”라며 “올해 수상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35세 이하 여성이 설립한 기업이라는 점도 인상적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4. 마무리

2025년 7월 1일, 한국 특허청의 보도에 따르면, “평균 업력 9년 이상의 여성벤처기업은 약 5,000개이며, 이 중 제조업,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업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12명을 채용하여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주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여성·청년 창업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 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206

한국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



한국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습니다. 본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었으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던 지식재산기본법도 새로 출범한 지식재산처가 소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의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법률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권 최초의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10월 1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JETRO(서울사무소)의 비즈니스 단신(2025년 10월 14일)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정철학 과비전을 정부 조직 전체에 반영하여 정부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특정 부서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AI)의 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신설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분할과 검찰청의 폐지가 시행되었다. 특히 예산 심사 일정과 여러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의 분할은 2026년 1월 2일까지, 검찰청의 폐지는 2026년 10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던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조직 개편

개편 이전에 한국 특허청은 (구)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서 지식재산 행정을 관할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규정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 특허청은 독립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으며, 지식재산기본법도 지식재산처의 소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통계청의 기능을 잇는 국가데이터처가 국무총리 소속의 조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한국 특허청이 소속되어 있던 (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은 (구) 환경부에 통합되어 산업통상부가 되었고, (구)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었습니다. 한국 특허청의 영문 표기는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였지만,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영문 표기는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MOIP)’가 되었습니다.

‘처’라는 단어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영문 표기가 ‘Office’에서 ‘Ministry’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승격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MOIP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재했던 한국 특허청(KIPO)은 대전시에 위치해 청장, 차장, 1관 9국 1단 57과, 3개의 소속기관, 1,785명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10월 1일에 출범한 지식재산처(MOIP)는 다른 ‘처’가 있는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대전시에 남아 처장, 차장, 1관 10국 1단 62과, 3개의 소속기관, 1,8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KIPO)의 마지막 청장이었던 김완기 청장은 연임하지 않았으며, 지식재산처(MOIP) 출범 시점에는 처장이 공석이었습니다. 한국 특허청(KIPO)의 부서였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정보국’의 명칭이 각각 ‘산업재산’에서 ‘지식재산’으로 변경되어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정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개편 전 ‘산업재산분쟁대응과’의 업무를 이어받아 ‘국’으로 승격되었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4.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나 K-푸드, K-콘텐츠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에서 세계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전체의 개편에서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지식재산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MOIP)에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지원이 중심으로 향후 해외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출범한 조직의 방향성은 앞으로 새로운 처장의 지도력 아래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 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207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본 차세대와 지식재산의 중요성



2025년 11월 12일, 한국 지식재산청은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수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팀이 대통령상을, 숙명여자대학교 팀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산업계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1.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8번째 개최를 맞이했습니다. 지식재산청에 따르면 이 대회는 특허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관한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경진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9개 대학에서 총 1,456개 팀이 참가하여, 국민 참여 심사를 포함한 5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30개 대학, 10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청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여러 단체와 더불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하여 산업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한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2. 수상내용

본 대회는 기업에서 제공한 과제에 대해 대학생 참가자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상은 SK하이닉스가 출제한 ‘적층형 DRAM 기술’ 과제에 대해 국가별, 기술별, 출원인별 특허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여 특허 전략을 제시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Docent’ 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출제한 ‘자율주행 기술’을 주제로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제품 적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중심으로 사업화 전략을 제시한 숙명여자대학교의 ‘가치 ON’ 팀이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처장상 등 총 108개의 상이 수상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의 상금과 함께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 프로그램 참가 자격 등이 주어집니다. YIPL에서는 유명한 CEO의 강연, 리더십 및 지식재산 강좌, 지역 네트워크, 산업체 방문, 취업 상담 등의 기회가 제

공됩니다.

3. 수상자와 취업률

올해 수상식에 관한 발표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본 대회의 수상자와 일반 학생 간의 취업률 차이입니다. 최근 5년간 본 대회 수상자의 평균 취업률은 78.6%로, 같은 기간 공학 계열의 평균 취업률인 70.4%보다 약 8% 높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대학생 시절에 실천적인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용을 경험하는 것이 향후 취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 데이터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한일 대학생의 지식재산 교류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팀의 지도 교수 부문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상과 지식재산처장상을 동시에 수상한 숙명여자대학교의 하윤수 교수와 필자가 공동으로 2025년 10월 ‘차세대가 생각하는 지식재산 전략 2025’를 개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 교육을 선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숙명여자대학교와 일본의 테이쿄대학의 학생들, 각 6개 팀·총 12개 팀에게 비즈니스와 지식재산을 통한 사회과제의 해결에 대한 제안을 진행해주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유사한 대회 경험이 있고, 과제 제출이나 독자적인 해결 수단 등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으며, 프레젠테이션 내용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경험은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과 연관되어 더욱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며, 앞서 언급한 취업 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가 생각하는 지식재산 전략 2025’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